하늘가치 세상점유율 높이기 3단계

(열왕기하 23:21~37)

21.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8.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31.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가치 세상점유율 높이기 3단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가치 세상점유율 높이기 3단계'
2015년 세계성서번역 현황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성경은 전 세계에서 2,93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2,935개 언어 중에서 563개의 언어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었고, 신약전서만 번역된 것이 1,334개 언어이고 쪽 복음처럼 단편적으로 번역된 것이 1,038개 언어라고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6,887개라고 하는데 엄청납니다. 다만 염두에 둘 점은 이중에 30%의 언어는 사용자가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웬만한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된 셈이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1,000명 이하인 언어까지도 끝까지 번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등수를 매겨보자면 12억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가 단연 1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힌두스타니어가 5억 4천만이고 스페인어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는 제2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4억 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어가 2~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고 성경은 그러한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번역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몇 명이나 하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에도 성경이 한두 권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집에 대여섯 권씩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하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 번역은 무척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성경만 번역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모든 종파와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22억 명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 가치로 지배되는 언어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많이 번역되고 또한 성경공부를 많이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불모지에서도 오히려 하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된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전해지고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고사하고 쪽 복음조차 없을지라도 십자가만 전해지고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으면 진정한 믿음을 싹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신앙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도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더라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면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구약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몰랐을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무슨 수로 들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성령의 역사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주어졌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랍비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하나를 알고 생활화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때가 역사상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7,000개에 가까운 언어가 있지만 언어를 지배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마음속에 가치가 있어야 판단이 시작되고 판단은 생각의 방향을 만듭니다. 생각의 방향이 생기면 말이 만들어

지고,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지난 말씀에서 가치는 나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치는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인격성의 주인입니다.
인격성은 마음이 가치를 끌어안음으로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므로 철저하게 언어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감정과 의지도 언어가 없다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슬픔이 언어로 지각되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서는 7,000여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가치와 언어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세상에는 단 두 개의 언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와 그 외의 것들의 세상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입니다. 세상에는 돈 건강 권력 미적추구 평화 평등 자유 인권 등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나라도 딱 두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늘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제1가치로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라가 망하든 불이 나든 사업이 망하든 암에 걸리든 자녀가 불통하든 하나님이 제1가치이고 제1관심사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민으로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세상 가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마음의 1등 관심사로 첫 번째 현실적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항상 부딪힙니다.
오히려 한 가정 안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제1가치에 의해서 지배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아내는 반대로 세상가치에 의해서 지배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가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하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민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돈이고 승진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너스를 더 받고 성과를 더 올리고 사장에게 더 잘 보일지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지배된 언어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는 자가 선민이고 그것이 선민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세상 나라의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영성

입니다.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므낫세의 영성인 세상 가치에 대한 관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가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형통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근히 선전하든 노골적으로 선전하든 므낫세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하늘 가치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넓혀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이 유다의 멸망이 확정된 가운데 요시야 왕의 역사를 삽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통하여 지정학적인 영토가 없어져도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어 위에 계속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이어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백성 간에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찍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맺었던 하나님과 선민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고 잡다한 사교 행위자들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므낫세로 말미암아 멸망의 확정통보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러한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의 북진정책에 맞서다가 므깃도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왕들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요시야는 왜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죽게 된 것일까요? 또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3개월간 통치한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이복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특별히 애굽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유월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의 의미는 선민은 곧 유월절의 민족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선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어가는 밤에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선민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초태생'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첫 번째 관심사로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초태생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애굽의 초태생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하는 가치가 세상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영을 보내셔서 다 죽이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가 첫 번째였는데 어린양이 대신 죽음으로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늘 가치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월절의 의미에서처럼 첫 번째 관심사인 세상 가치가 죽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치와 첫 번째 관심사의 내 인격이 어린양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체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을 복지로의 인도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체결을 통한 하나님과 선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 부부가 되어 살 집을 찾은 것이 복지인 것입니다. 언약이 결혼의 목적이었던 것이지 복지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근거로 하여 언약을 체결한 것도 이제는 내 마음의 첫 번째 가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웃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때문이고, 이 땅에서는 나를 웃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가치는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부속된 아홉 개의 계명이 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지배하는 가치인 하나님 외엔 내게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양이 죽듯이 세상의 가치로 물든 나의 인격이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빈 공백으로 살 수는 없으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웃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가치이고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세상은 온통 애굽 사람 천지입니다.

이제까지의 왕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패역하면 이방나라를 채찍과 막대기로 동원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망하기로 확정된 역사 속에 삽입된 인물로 선민의 나라가 어떻게 영속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죽었다’는 것은 곧 선민은 싸우다 죽어야 함을 뜻합니다. 애굽은 세상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땅에 속한 세상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 반면에 선민의 나라는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세상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싸우다 죽는 삶이어야 합니다. 애굽과의 싸움에서 요시야의 죽음은 저주나 심판이나 징계나 오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싸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만 오늘은 열왕기하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중심을 맞추어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왕하의 저자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나라 안으로 확장시키는 싸움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마6: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어 살면서 세상 가치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절대 유일의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사장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사를 위한 성과와 번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싸움을 위한 하나의 준비 조건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가치를 세상 속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쓰면 됩니다. 요시야가 애굽과의 싸움에서 죽었다는 의미의 메시지는 우리도 이 싸움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의 의미대로 세상 가치에 대해 죽어야 하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의미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제1의 가치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실제로 점유율이 높여져 가는 승리도 주실 것입니다. 싸우다 죽으십시다.
유월절의 의미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기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 가치로 살기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죽기 살기로 싸우다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요시야가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하늘 가치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싸움에서 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